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160호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과 시사점

이승현*

배경

-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은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정한 국력과 규모를 갖춘 통일국가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서 존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 세대의 통일 및 평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

주요내용

- 통일교육원 및 통일교육협의회가 조사한 통계를 분석함
-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향후 합리적인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통일의 '필요성 인정'이 55.5%, '필요없음·잘 모르겠음'의 답변이 43.8%로, 현상유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비율임

- 통일의 중요한 대상이며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적대적인 응답이 43.9%로, 우호적인 응답 43.8%와 비슷하게 나타남
- 통일과 평화유지의 중요한 국제환경이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함.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 응답이 50.9%로 나타남

시사점

- 청소년세대의 통일 및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그간 제기되고 검토되어 왔던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교육을 보다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통일 교육과 더불어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거둬으로써 후속 세대가 통일비용에 부담을 덜 갖고 통일문제에 대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글로벌 체험과 문화체험을 겸비한 청소년 세대에게 보다 넓은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02-788-4555, lee.sh@assembly.go.kr



청소년 세대의 통일 인식 조사 현황

-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 첫째, 통일교육원에서 6년간 매해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음
 - 청소년들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 항목과 북한에 대한 인식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둘째,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북한과 대북정책에 관한 의식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음
 - 대학생들이 통일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있는 항목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인식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본 보고서를 위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세대의 통일교육을 담당해 왔던 중요한 두 기관의 조사 중에서 적절한 것을 수집하여 활용하였음

[표 1] 청소년들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 (2014~2019)

(단위: %)				
년도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기타
2014	53.5	19.7	26.1	0.7
2015	63.1	17.0	19.1	0.8
2016	63.4	15.8	19.5	1.3
2017	62.6	16.1	20.7	0
2018	63.0	13.7	22.6	0.7
2019	55.5	19.4	24.4	0.7

※ 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학생 11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9년에 실시한 바 있음
 ※ 자료: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014-2019)

- 통일교육원이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014~2019)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절반 이상(53%~63%)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도 약 1/5(13.7%~19.7%) 가량 차지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1/4 (19.1%~26.1%)가량 차지하고 있어서 2019년 기준으로 현상유지적 견해가 43.8%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통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 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통일의 적극적인 추진 보다는 평화로운 현상유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매우 오래된 것이기도 함
 - 2019년 실시한 상기 조사에서는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다면 통일되지 않아도 좋다’는 평화공존의 응답이 27.2%로 나타난 바 있지만, 약 30여년 전인 1992년도의 조사·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음¹

1 박성희외, 「청소년의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20.

□ 통일의 장애물로는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 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응답하고 있음

-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서적 측면의 생각보다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위험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해야겠다는 것임

[표 2]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2014~2019)

(단위: %)

년도	협력대상	지원대상	적 또는 경계대상	기타 및 무응답
2014	48.8	14.5	26.3	10.4
2015	50.5	11.7	31.8	6.0
2016	51.6	10.0	33.1	5.3
2017	42.3	11.0	40.0	6.7
2018	50.9	12.1	33.4	3.6
2019	43.8	8.2	43.9	4.1

※ 주: 협력대상, 지원대상, 적 또는 경계대상의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및 무응답으로 보정처리함
 ※ 자료: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14~2019)

□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 청소년 세대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여전히 ‘전쟁·군사’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강한 인상으로 ‘북한=독재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임. 다만, 세 번째 이미지로 북한을 한민족이며 통일을 연상케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음

□ 통일 문제는 민족문제적 성격과 국제문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적인 정치사안이라 할 수 있음. 민족문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실마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음

- 과거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 이후 적대적 관계와 비적대적 관계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향후 통일을 완성하는 시점에서는 적대적 관계 보다는 비적대적인 화해협력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음
- 위 [표 2]의 응답률을 분석해보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남북관계의 과도기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조사(2019년)를 보면, 청소년 세대는 북한에 대하여 협력대상이면서 동시에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물론, 남북관계 경색기(2017년)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시기(2018년)의 응답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관찰되고 있음
 - ‘통일대박론’(2014~2016)이 나와서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던 시기(2018)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청소년들의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2019)

(단위: %)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무응답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8.7	46.0	38.6	6.6	2

※ 자료: 이장한, 「2019 대학생 북한과 대북정책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통일교육협의회 세미나 (2019), p.25.

-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에 대해서는 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응답률이 54.7%이며,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 38.6%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응답률이 45.2%임
 - 한반도의 국제환경이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일 추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

[표 4] 청소년들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인식 (2019)

(단위: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없음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50.9	7.9	2.8	1.4	36.7

※ 자료: 이장한, 「2019 대학생 북한과 대북정책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통일교육협의회 세미나 (2019), p.16.

- 우리의 통일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미·중·일·러가 있으며, ‘이들이 한반도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응답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 세대의 하나인 대학생들은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라고 간주하고 있었으며, 미국 이외의 중국, 일본, 러시아를 지목한 응답률 보다는 ‘없음’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²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통일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
 - 청소년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현실인식을 갖는 것은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함
 - 청소년 세대에게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 보다는 현재의 청소년 세대들이 글로벌 경험을 다양하게 체험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고,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더 넓은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조망하고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놓을 수 있을 것임

2 이장한, 「2019 대학생 북한과 대북정책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통일교육협의회 세미나 (2019), p.16.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사이트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